

201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 지원사업 연극분야 대본공모 지원심의평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에는 195편이 응모했지만 지원신청서 및 대본 등을 미제출한 6편과 다른 문예기금사업에 선정된 1편이 제외되어 심의대상에 오른 작품은 총 189편이었다. 이를 심의위원 5명이 한 달 동안 꼼꼼하게 읽고,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공연작품의 대중성(30%) / 무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30%)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총 13편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토론으로 최종 5편을 선정하였다.

올해 응모작의 중심경향은 치열한 사회인식을 담은 작품의 비중이 매우 커졌고, 시대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작품들도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제와 소재의 영역도 확대되어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아졌다. 작가들의 관심사가 개인과 일상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정치, 역사 등 현실문제로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희곡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작품, 관념적이고 진부한 구성의 작위적인 작품, 대중성만을 앞세운 작품 등도 적지 않아서 작품 간의 편차가 매우 컸다. 그렇기에 연극대본 이전에 문학작품으로서 깊이와 철학, 그리고 인간과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5개의 작품들은 시의성 있는 주제의식, 독창적인 상상력, 강화된 연극성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 등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 스타일의 작품들이지만 당장 공연해도 될 만큼 극적 완성도가 뛰어나며, 이야기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 연극에서도 포스트드라마시대를 넘어서 서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작1 <표절 작가(작 김성민)>은 '표절'이란 소재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아닌 창작의 존재론적 질문으로 확장시킨 주제의식이 뛰어나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사건의 구성력이 돋보였다. 우수작2 <뒤틀마루가 있는 집(작 김승철)>은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삶과 죽음을 공존시켜 환상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가족 서사가 정제된 언어로 그려졌다. 우수작3 <비밀에 갇힌 방(작 김이율)>은 각각 에피소드의 독창성과 상상력이 뛰어났으며, 매력적인 이야기의 힘으로 인해 연극성을 구현할 가능성이 큰 작품이다. 우수작4 <소나기마차(작 신채경)>는 인물성격과 인물 간 갈등이 잘 구축되었고, 예술의 의미와 현실에서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깊이 있는 주제의식이 돋보였다. 최우수작 <인어:바다를 부른 여인(서종현)>은 독특한 상상력, 치밀한 내면묘사와 극적 구성력 등에서 여타의 작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다.

희곡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쓰는 것이다. 완성도 높은 서사와 정제된 연극언어, 치열한 현실인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 심의위원 일동